

보도자료

2017. 6. 29.(목)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
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

< 자료문의 >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EL. 02-888-2035, 752-2037 / E-mail. lawschool@leet.or.kr

법학적성시험(LEET) 응시료 인하

- 응시수수료 인하를 통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장벽 완화에 기여할 것 -

-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올해 8월 시행되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(LEET) 실시부터 응시수수료(27만 원⇒24.8만 원, 8.15%)를 인하하고,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 제출할 증빙서류의 종류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부 고시*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.

* 「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,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- 이에 교육부는 「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,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을 6월 19일(월) 행정예고 하고,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시개정안을 확정하여 7월 말경 발령할 예정이다.

-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8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법학적성시험(LEET)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, 현재까지 LEET를 시행해오고 있으며, 2015학년도부터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수수료를 면제*하고 있다.

- 금번에 LEET 응시수수료 인하로 서민층이 법조계로 진출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.

* 응시수수료 면제 현황(접수인원 대비 비율) : (14년도) 218명(2.5%), (15년도) 251명(3.0%), (16년도) 319명(3.6%)

-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민의 법조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17학년도부터 국·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은 향후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,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은 평균 12.95%의 등록금을 인하한바 있다.
- 교육부도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고지원 장학금 예산으로 2016년도에 37억원, 2017년도에 42억원을 확보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고 있다.
- 향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능력과 열정이 있는 서민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.

[붙임] 행정예고 공고문(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고시) 1부. 끝.